

비박 신당 ‘짜짓기 시나리오’ 대선 새 변수로

국민의당 연대론 유력…중도 고리 수도권·호남 기반 공유

반기문 영업 독자세력화 가능성·새누리 재결합 확률도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 의원들이 집단탈당 후 만들 ‘보수신당’(가칭)이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내 비주류 세력 등과의 합종연횡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돼 대선국면에서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신당은 보수를 표방하지만 지역적 기반은 취약하고, 이념적 지지 세력 역시 허수에 가까운 상황이다. 그동안 유권자들의 투표 양태를 볼 때 독자 생존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연대가 가능한 짝을 찾아 세를 확산함으로써 존재감을 키우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신당의 여러 가지 ‘짜짓기 시나리오’ 가운데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파트너로 거론되는 정파는 가장 먼저 ‘제3지대’

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국민의당이다. 양측 모두 계파 패권주의 청산을 지향하고 있어 함께할 명분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대선 전략 면에서도 이념적으로 중도·중도보수·중도진보를 아우르는 가운데 수도권과 호남의 지역 기반을 공유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안철수 전 공동대표와 유승민 의원, 김무성 전 대표 등의 제휴는 영남권에서도 표를 끌어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은 또 공동 선거운동, 후보 단일화 같은 전략적 제휴나 연대를 벗어나 합당까지 시도해볼 가능성도 없지않은 않다. 현재 야권의 선두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포위해 고립시키는 이른바 ‘반문(반문재인) 연대’ 전략이다.

이 같은 반문 연대에 민주당 내 비주류 세력까지 합세할 경우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야권 내 반문 세력’과의 제휴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 비박계도 ‘최순실 국정 농단’ 파문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야당 입장에서 비박계와 노골적으로 연대를 할 경우 그 책임의 일부를 지게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거리를 두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보수신당은 어쩔 수 없이 독자 생존을 모색하거나 명실상부한 ‘진박당’이 된 새누리당과의 재결합을 시도할 수밖에 없다. 보수신당의 독자 생존을 위해서는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영입이 절실하다. 현재 보수 진영에서 야권 유력 후보들과 대등하게 맞설

유일 주자로 거론되는 반 총장을 영입해야만, 기존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도 지사 등과의 경선 흥행을 통해 필승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보수신당이 반 총장 영입에 성공할 경우 다자 구도를 염두에 둔 채 단독으로 대선을 치를 수도 있고, 야권 비주류 세력들을 다시 끌어 모으는 구심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기대가 무너지다면 보수신당은 친정인 새누리당과의 재결합으로 보수 세력 결집을 노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 경우 합당을 통한 재창당과 당명 변경 등으로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기존 새누리당의 친박 색깔을 탈색하는 전략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보수 세력의 재통합은 ‘위장 이혼과 재결합’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동철 “민주당 연말 분당 가능성”

“친문 패권주의 내부 불만 폭발 직전…제3지대 주시”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연말 무렵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새누리당과 같은 탈당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히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22일 광주지역 국회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친문(친 문재인) 패권주의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이며 제3지대를 주목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 내부의 ‘비문’(비 문재인) 진영과 물 밑에서 활발히 소통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조기 대선 정국의 유동성이 커지면서 제3지대에서의 정권 창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제3지대에서 반 패권주의 연대 등을 주도하며 정권 창출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헌론과 관련, 김 위원장은 “국민의



당은 23일 의원총회를 개최, 개헌의 당론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대다수 의원들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개헌의 당론 추진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지금은 구제제 청산을 위한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 “대선 전 개헌에는 반대한다”고 말해 당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개헌은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투표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누리 탈당파 창당 작업 돌입…다음달 20일 출범

제3당 목표 중도 설득 심혈

집단 탈당을 선언한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보수신당’(가칭) 창당을 위한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정병국 의원은 공동 위원장에 추대된 주호영 의원과 만나 창당에 관련된 실무 작업을 조율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준비위 관계자는 “무엇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큰 만큼 창당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자금도 부족한 신생 정당이라 준비위 사무실은 따로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당에 참여키로 한 의원들은 오는 27일로 예고한 탈당계 일괄 제출에 맞춰 발기인을 모집하고 창당대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예정이다. 또 당사를 마련하고 사무처 직원들을 채용해야 한다. 새누리당 사무처 직원 중에서도 일부는 신

당으로 옮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위 관계자는 “국민의당 사무처가 창당 당시 직원이 70명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해 그보다 작은 규모로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같은 준비 작업을 마치고 공식 당명(黨名)을 정해 출범하는 시점은 내년 1월 20일로 잡았다. 최대 관건은 탈당 결의 의원들이 실제로 탈당계를 제출하는 일이다. 탈당 결행까

지 약 1주일의 시간을 둔 것도 아직 지역구 유권자나 당원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못한 의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비박계는 국민의당(38석)보다 의석이 많은 원내 제3당을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아직 탈당을 망설이는 중립 성향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황영철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추가 탈당 규모와 관련,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어느 정치지형에서 (행보를) 할 것인가 선택하는 부분이 매우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황 대행, 야 지도부와 첫 공식회동

국민의당과 의견 교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회동을 갖고 권한대행 체제 이후 국정 운영과 관련한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황 권한대행이 야당 지도부와 공식 회동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5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회동에서 황 권한대행은 우선 전날(21일)까지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문제와 관련해 “위원장께서 권한대행 소임을 이해하고 고심어린 해법을 제시해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야당 지도자들과 격의없이 수시

로 만났더라면 이런 사태가 있었을까”라며 “이렇게 격의 없는 자리가 있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당은 조속한 국정안정 그리고 위기극복을 위해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국정 그리고 박근혜표 정책을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보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야 정당이 항상 국익과 민생을 얘기하면서 정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조건과 형식을 합의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며 “국민의당은 조건과 형식을 말하기 앞서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토론회서 어색한 文-安 인사
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만나 자리하고 있다.

조기 대선의 초입에서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 토론회에서 만나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병호 국민의당 대표 경선 출마

박지원·정동영과 3파전 전망

국민의당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이 22일 광주에서 “호남이 없으면 새정치도 없다”며 대표 경선 출마 의지를 재차 밝혔다. 수도권(인천 부평갑) 재선 의원 출신인 문 본부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호남 중심 새정치, 영남패권주의 혁파, 문재인 세력 심판을 강조했다. 그는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얻었던 국민의당이 지금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며 “그 원인은 낡은 구태정치에 물들어 기득권 정치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또 “정권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혁명적 변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15일로 다가온 국민의당 차기 당권경쟁은 호남 출신의 박지원 정동영 의원에 더해 수도권 출신의 문 본부장까지 3파전 구도로 치러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박지원 “반기문측서 뉴 DJP 연합 제안”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2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측에서 뉴 DJP(김대중 김종필) 연합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역위원회 당원대회 참석차 국민의당 부산시당을 찾아 “반 총장 측에 사람을 보냈는데 박지원이 밀어준다고 하면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으로 안 가고 국민의당으로 오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약속을 할 수 없었

고, 안철수 전정체 정운찬 손학규하고 치열하게 경선하고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간이 없어 이번 대선에는 개헌이 어렵지만 개헌이 약속했기 때문에 손학규와 정운찬이 국민의당으로 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3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만나기로 했다 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초교 동측위치 평동 제1차 일반산업단지 토지 1652.6㎡ 건물 2547.76㎡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7천
- ★ [건물] 목포시 석현동 가톨릭대학교 부근 병원건물 토지 12,096㎡ 건물 8,337㎡ 감정가 139억7천3백 ▶ 최저가 78억2천5백
- ★ [건물] 순천시 풍덕동 중앙초교 인근 주상복합지대 10층 건물 토지 349.4㎡ 건물 2,281.94㎡ 감정가 24억3천 ▶ 최저가 17억
- ★ [무인텔최적합]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은천관광단지내 포장도로점 토지 3,234.2㎡ 건물 4,280.8㎡ 감정가 37억8천 ▶ 최저가 15억5천
- ★ [건물] 장성군 북하면 악수리 백양사남서측 포장도로점 토지 926㎡ 건물 837.49㎡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2억8천
- ★ [건물]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가 48억8천 ▶ 최저가 21억9천
- ★ [공장]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장성 백이사거리인근 공장지대 토지 9,178㎡ 건물 5,842㎡ 감정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0억4천7백
- ★ [공장] 광산구 옥동 평동산업단지내 기아자동차출하사무소 서측 도로점 토지 2,911.9㎡ 건물 1,811.2㎡ 감정가 32억9천7백 ▶ 최저가 23억8백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주택, 과수원 (물류창고, 공장적합) 토지 34,000㎡ 매매가 상담후 협의가
- ★ [토지] 동구 자산동 무등산 유원지 카페의거리 부근 토지 1,950㎡ 주위 식당, 카페성업중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토지 4,000㎡ 주택 28세대가능 상가 건물로 교환 원함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공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답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가능 매매
- ★ [토지]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824평 무인텔 허가 득(19객실) 매매가 8억3천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옆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
- ★ 광주근교 전원주택부지 다량보유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 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8억
- ★ [건물] 광산구 첨단 롯데마트부근 지하1~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1,192㎡ 임대안고도 가능 매매 60억(협의가)
- ★ [건물] 광산구 공항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 6층 병원건물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2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 ★ [건물] 광주 북구 용두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럴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6억포함), 보증금 7천 월4백6십 매매 13억5천
- ★ [건물]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현 양식장 5,522평 장어식당 운영 중(연매출 1억5천), 주택(포함) 매매가 17억

공인중개사 장현준 010-3610-4039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